

소상공인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이시우*, 이현수²

¹금오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링학 박사과정

²금오공과대학교 건설링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Plan for Revitalizing Start-up Performance of Micro-enterprise - Focused on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Siwoo Lee^{1*}, Hyunsoo Lee²

¹Ph.D. student in Graduate School of Consult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²Professor in Graduate School of Consult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일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기술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간의 차별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며 신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으로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연구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 정부중앙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향후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소상공인 창업, 기술기반 창업,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정부 창업정책, 창업 지원 펀드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mparisons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s startup polices between startup for micro-enterprise and technology based startup. In particular, revitalization plans of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NBSA)" which is supported by a governmental organization, are proposed. Currently, korean government's startup polices are focusing on more technology based startup than startup for micro-enterprise. In order to overcome this issu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issues of the startup policies for micro-enterprise and the detailed plans for revitalizing micro-enterprises' startups. As detailed research studies, the current program and supporting mechanism of NBSA are analyzed. Then, these are compared with several startup policies of Korea government and the detailed action plans are proposed. The proposed results contributes to the criteria and the references for vitalizing micro-enterprises' startups.

Key Words : Start-up for Micro-enterprise, Technology based Start-up,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Startup Polices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Fund

*Corresponding Author : Siwoo Lee(cisfae@naver.com)

Received October 5,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1. 서론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나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여 실리콘밸리의 기업과 같이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키워냄으로써 타 산업으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창업지원사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창업기업¹⁾은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나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는 등 창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이 기회추구형 창업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의 형태로 창업이 이루어지므로 융합의 시대에 준비된 창업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업종의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폐해가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융합의 시대에 맞는 준비된 창업을 위한 이론 교육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실전 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을 융합하고 다양화해서 새로운 업종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 업종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계형 창업의 형태로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음식점업종과 숙박업종, 도매업종 및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업종과 같은 생계형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 창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중에서 고효율과 가장 높고 나아가 소상공인업종에 새로운 혁신을 고취할 수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타 정부지원의 창업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소상공인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창업지원체계 수립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2.1. 소상공인 창업정책

2.1.1 소상공인 창업정책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 자료²⁾에 따른 2018년 정부 창업지원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창업도약패키지를 포함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2403.9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포함한 R&D사업에 2780억 원, 청소년 비즈쿨을 포함한 창업교육에 602.6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포함한 시설, 공간 및 보육에 977.1억 원, 아이디어 사업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포함한 멘토링 및 컨설팅에 180.2억 원, 벤처창업페스티벌을 포함한 행사 및 네트워크에 24.5억 원을, 총 7,796.3억 원을 창업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부의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기술창업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되는 부분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창업기업지원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기술 및 아이디어 중심의 기업 및 창업자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창업자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미비한 상황이다.

2.1.2 소상공인 창업현황

기술보증기금은 창업의 형태를 지원 목적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분류한다.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는 기술창업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창업의 형태를 나타낸다.

Table 1. Classification with respect to the type of entrepreneurship

Classification	Business Type	Business Shape	Feature
Technology Start-up	Manufacturing, Professional Service, Knowledge culture industry	Forms that carry out production and sales activities of products with new technologies or new ideas	- High risk, High return
General Start-up	General Service, Wholesale and retail	General business type such as simple distribution	- Low entry barriers, frequent start-ups and disappearance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2) 중소기업부 공고 2018-2

소상공인의 창업의 경우 일반창업형태의 창업이 대부분이며 진입장벽이 낮고 소자본 창업으로 대부분 영세하여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상황이다. 2013년 중소기업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사업체수의 87.6%(283만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종사자수는 38.2%(554만 명)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업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1.5%, 경기 20.4%, 인천 4.9%등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업종별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6.2, 음식숙박업이 12.6%로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시장 구조로 일반형 창업의 형태가 80.2%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소상공인의 창업 생존율을 보면 1년 이내 생존율이 83.3%, 3년 후에는 53%, 5년 후부터는 38%만이, 7년 후에는 겨우 29%수준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한 창업 생명주기를 보이고 있다[1].

2.2 소상공인 창업

‘창업’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면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의 뜻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의 제2조 2항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 중소기업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사업주를 제외한 종업원 수가 없는 사업체가 48.2%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 30.6%, ‘2명’ 11.9%를 나타내는 영세한 개인기업형 창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사업체 10,490개 중 91.4%가 단독사업체의 형태인 독립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형태인 대기업 가맹점포가 1.4%, 소상공인 가맹점이 7.2%로 나타났으며, 자기 소유 사업장인 경우가 25.2%로 나머지 74.8%가 임대사업장이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도 400만원 미만이 43.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영업이익의 경우 상대적으로 100~200만원 미만이 29.7%를 나타내어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며 생계형 창업의 형태를 띠는다고 볼 수 있다. 윤종록·

김형철(2009)은 개인이 창업에 필요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사업계획에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창업이라고 설명 하였다[3]. Timmons & Spinelli(1994)이 내린 창업의 정의는 창업이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설명 하였으며, 창업 비전 및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며 계산된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 하였다[4]. Ronstadt(1987)는 창업이란 부가적 부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는 자산, 시간, 직업에 대한 헌신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창업에 대해 정의하였다[5]. Vesper(1990)는 경제적 관점에서 창업이란 자원, 노동, 재료 그리고 자산을 결합시켜 이전보다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 새로운 질서를 수반한다고 설명 하였다[6]. Dollinger(2008)는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이고 경제적인 조직체를 설립하는 것이 창업이라고 정의하였다[7]. 창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상품, 새로운 자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판매시장, 새로운 조직 형태로 회사형태 조직을 만드는 행위라고 Schumpeter(1934)는 정의 하였다[8]. 예비창업자의 창업과 관련하여 전인오(2012)는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은 성공 창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오며, 성급한 창업이 아니라,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야 성공창업으로 갈수 있다고 설명 하였다[9]. DeTienne and Chandler(2004)는 창업교육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이 예비창업자들의 기회 개발과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키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하였다[10]. 설병문, 홍효석(2013)은 창업자의 창업교육 경험과 비즈니스 기회인식 및 발견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설명 하였다[11]. 소상공인 창업교육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업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Zhao, Seibert, and Hills(2005)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효능감이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창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에는 창업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실습형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12]. 김홍수(2015)는 융·복합 창업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 교육과정의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조 1항

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융·복합 창업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실무와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한 프로세스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실천형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13]. Krueger & Brazeal(1994)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는데,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뿐만 아니라 창업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학습자들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연구하였다[14]. 이미자·양혜술(2015)은 교육 성과와 관련하여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는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발방법은 각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교육목적과 문화, 성과의 활용방법과 범위 및 교육생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5]. 육희수·류태모(2004)는 소상공인 교육 및 정보 제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소상공인의 아이템은 다양한데 교육은 일반적인 내용만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67]. 선행연구자의 연구 자료를 일반적인 창업의 정의 및 관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한 기존연구(Table 2 참고)와 세부 교육 중점 및 구성요소(Table 3 참고)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Table 2. Existing research studies for analyzing entrepreneurship and the relevant educations

Researcher	Keyword and Definition
J, R, Yoon & H, C, Kim(2009) / Timmons, J. A. & Spinelli, S(1994)	- Define entrepreneurship
Ronstadt, R. (1987) / Vesper, K. H. (1990) /Dollinger, M. J. (2008)	- Entrepreneurship as a dynamic process - Start-up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 Start-up with the condition of risk and uncertainty
Schumpeter, J. A. (1961)	- Start-up is the creation of a company-type organization with new products
I. O Jeon. (2012) / DeTienne, D. R., & Chandler, G. N. (2004) /B. M. Seol & H. S. Hong(2013)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 (2005) / Krueger Jr, N. F., & Brazeal, D. V. (1994)	-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pre-founder - Practical training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s well as entrepreneurial skills - Improve self-confidence in entrepreneurship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H. S. Kim (2015)	- Process-oriented program based on practical and theoretical basis
M, J, Lee & H, S, Yang	- Educational achievement & Educational

(2015)	Development Method
O, S, Yug & T, M, Lyu(2004)	- Lack of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small start-up

Table 3. Relevant existing research studies

Researcher	Features and Benefits
J, R, Yoon & H, C, Kim(2009)	- Business ideas for start-up
Timmons, J. A. & Spinelli, S(1994)	- Successful enterprise for New venture management
Ronstadt, R. (1987)	-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Studies
Vesper, K. H. (1990)	- Venture's competitive strategy
Dollinger, M. J. (2008)	- Entrepreneurship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chumpeter, J. A. (1961)	- Structural change and institutional evolution for entrepreneurship
I. O Jeon. (2012)	- The necessary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Tienne, D. R., & Chandler, G. N. (2004)	- Ideas & innovativeness of Start-up
B. M. Seol & H. S. Hong(2013)	- Entrepreneurship experience and business opportunity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 (2005)	-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related courses,
H, S, Kim (2015)	-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curriculum
Krueger Jr, N. F., & Brazeal, D. V. (1994)	- A potential for entrepreneurship
M, J, Lee & H, S, Yang (2015)	- Different methods of human and physical environment
O, S, Yug & T, M, Lyu(2004)	- The diverse Items of small business owners

3. 소상공인창업교육-신사업창업사관학교

3.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장 배경

창업교육의 목적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창업 전에 이해하여 원활한 창업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창업교육과 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창업교육을 신사업 육성지원사업(2007.01~2016.12)과 소상공인사관학교

(2015.01~2016.12)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이 두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전환하였다.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은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과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고,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조형 업종 창업의 확산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추진된 지원 사업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간의 과다경쟁을 해소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및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은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보급, 실전용 창업이론교육 및 체험점포교육, 집중 멘토링과 점포 전담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현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간의 과다경쟁을 해소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창업 item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및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은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보급, 실전용 창업이론교육 및 점포체험교육, 집중 멘토링과 점포 전담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사업사관학교 체험점포교육장인 ‘꿈이룸’ 현황은 Table 4 및 Fig. 1과 같다.

Table 4. Number of the experience store “Dream come true” in 2018

City	Number
Seoul	5
Busan	2
Daegu	3
Daejeon	4
Gwangju	2
Suwon	1
Total	17



Fig. 1. Experience Stores of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3.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체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융합의 시대에 맞게 기존의 기술창업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던 부분을 접목시켜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신사업 분야로의 창업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신사업 아이디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건으로 한다. 참신성은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고객 발굴 가능성 및 비즈니스모델의 개선을 통한 효용성 등을 가진 아이디어를 말하며, 신사업아이디어에 대한 특징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창업비용의 경우 2억 원을 초과하면 적절하지 않고 사업 준비기간의 경우 6개월 이내가 적절하고, 18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신사업창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창업을 고려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아이디어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아이디어를 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 및 멘토링은 신사업 창업 관련 이론 교육 및 점포체험을 통한 교육을 통해 유망 item 중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을 갖춘 창업 item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유도한다. 실천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 점포체험 교육, 집단 멘토링, 점포 전담 멘토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천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은 기본 창업교육, 경영 전반에 관한 교육, 업종별 전문 강사로 구성된 전문교육 등 총 150시간 정도의 intensive 창업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점포체험을 통한 실습교육은 이론교육을 수료한 수료생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필수 시설비를 지원하며 총 16주간 점포 운영을 체험한다. 지역별

체험점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광역도시를 중점으로 19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에 운영되던 점포 중 3개 점포를 철거하고 경기 수원 지역에 1개 점포를 신설하여 총 17곳의 체험점포가 운영 중이다. 사업화지원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종합평가(이론 및 점포체험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 중 4개월 이내에 신규 창업이 가능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최대 25백만 원(자부담 50%), 기수당 30명에서 2017년에는 최대 20백만 원(자부담 50%), 기수당 60명, 2018년에는 최대 20백만 원(자부담 50%), 수료생 전원 지원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교육생 사후관리는 점포체험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을 완료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외홍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개척과 업체홍보 등을 지원한다. 신사업사관학교 운영 프로세스는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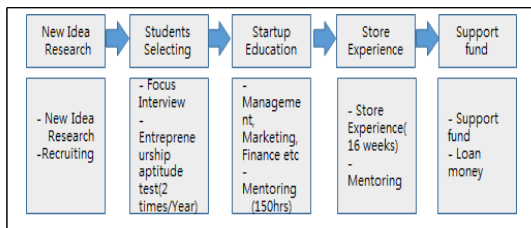


Fig. 2. Curriculum Procedures of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4. 정부 타 기관 창업지원 사업 분석

4.1 중앙정부 창업정책

중앙정부의 창업정책은 창업생태계를 위한 창업 기반을 구축하기 보다는 창업자나 창업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창업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KIET의 2017년 연구 결과가 나왔다. KIET의 산업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 여러 부처에서 창업을 취업을 대신하는 새로운 출구로 삼아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2017년 중앙정부 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 5,634억 원

(90.7%)로 중앙부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과기정통부가 1,076억 원, 교육부는 421억 원, 고용노동부가 150억 원, 농식품부가 137억 원, 특허청이 82억 원, 문체부가 7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집행된 창업지원 금액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인 융자금액이 2조 79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창업사업화자금이 3,000억 원, 창업 R&D자금이 2,172억 원 등을 차지한다. 또한 창업 시설과 공간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760억 원, 창업교육 금액으로는 646억 원, 멘토링 및 컨설팅 금액으로는 376억 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등 판로확보와 관련하여서는 154억 원, 행사·네트워크 등 행사지원 금액으로는 278억 원, 기타 패키지형 지원 금액은 331억 원 등이다. 2017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창업지원사업 수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추진한 창업지원 사업 수가 89개이며 집행기관은 38개이다[18]. 중앙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창업교육, 정책자금, 창업시설 및 공간, 사업화, 멘토링 및 컨설팅 등 기능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2017년 창업지원 사업 예산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Budgets per startup supporting type of central government in 2017

Name	Budget(Billion Won)
Policy fund for loan	20,790
Startup business fund	3,000
Startup R&D	2,172

중앙정부 부처 중 창업지원 규모가 가장 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기능별 역할 수행을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된 대부분은 창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진흥원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기술혁신형창업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소상공인창업과 관련된 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루어지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활성화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기능별 역할은 크게 창업을 담당하는 창업진흥원, R&D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기능별 역할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Roles of affiliated organizations in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tartup	R&D	Manpower	Small enterprise & Traditional Market
Korea Institute of Startup&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Small Enterprise and Marketing Service

4.2 2018년 중앙 정부 창업지원사업

2018년 중앙 정부 창업지원 사업⁴⁾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첫째, 사업화지원 사업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단계, 창업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둘째, R&D지원 사업으로 고급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전 사업화 기술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창업교육 사업은 청소년, 시니어,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시설·공간·보육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들에게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 시장 진출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멘토링·기업가 정신 지원 사업은 기술 및 경영 관련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의 창업 역량 증대를 돕는 사업이다. 여섯째, 행사·네트워크사업은 우수한 창업 item이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국내외 진출기회를 돕고 있는 사업이다. 중앙정부의 2018년 창업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2018 Main programs for startup of central government in 2018

Program	Subject
Supporting for setting a Business Model Program	Bs or company who has a business idea
Supporting for R&D Program	Technology based a company
Startup Education Program	High-school students, Seniors, Disabled persons, women
Incubating Program	Pre-Startup or Startup company
Mentoring & Consulting Program	Pre-Startup or Startup company
Event&Network Program	Sb or company who has an excellent business idea

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2

4.3 중앙정부 창업지원 교육 발전방향 제언

소상공인창업 정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기타 창업정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정책적 지원 및 인력 등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우 창업 시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창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창업정책 및 창업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되며 지원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대부분 혁신형 창업의 성격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 창업 후에도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사한 소상공인업종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나아가 신사업아이디어를 갖춘 업종 창업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중앙정부 창업지원 교육은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에 대한 미래 방향을 설정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창업지원 교육 프로세스는 Fig. 3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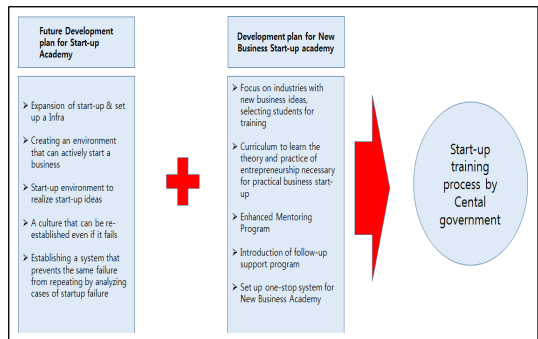


Fig. 3. Start-up training process by Central government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창업의 핵심 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력충원과 정책수립 및 창업 정책 자금의 확보를 위한 연구와 수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향후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사업item으로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

고 생존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창업활성화 아카데미 미래 발전 방안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발전 방안의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창업활성화 아카데미 미래 발전 방안으로는 환경적 요인인 아이디어 실현을 통한 창업 확대와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창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재창업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실패한 창업 사례를 분석하여 재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초기 단계의 창업 아이디어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화아이템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한다. 획일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아닌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순한 멘토 프로그램이 아닌 맞춤형 멘토단 구성을 통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창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과 민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창업활성화 아카데미 미래 발전 방안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Future development plan for Start-up academy

Environment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Expansion of start-up & set up a Infra	Strengthening the initial stage of business idea verification process and set up as business model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can actively start a business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grow entrepreneurs with tailored support
Start-up environment to realize start-up ideas	Introduction of intensive upbringing system for promising start-up
A culture that can be re-established even if it fails	Practical help with customized mentor organization
Establishing a system that prevents the same failure from repeating by analyzing cases of startup failure	Construction of integrated system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신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에 중점을 두어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일부 위탁하여 교육생을 선발함으로써 신사업 아이디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교육 커리큘럼을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서 실천 창업에 필요한 창업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과목 중

심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 교육 역시 이론적 배경지식 뿐만 아니라 실천의 경험도 갖고 있는 실천형 창업 강사들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실제 창업 시 실패율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운영되는 멘토링 프로그램보다 강화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윤인철(2017)은 창업 멘토링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창업 멘토링은 창업교육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창업교육보다 멘토가 직접 참여하는 실습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9]. 따라서 창업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담당책임 멘토제가 요구된다. 담당책임 멘토제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창업한 선배 창업자를 멘토로 활용한다면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선배 창업자와 창업예정인 교육생을 상호 매칭한 후 선배 창업자의 창업 공간에서 일정기간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선도대학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창업한 소상공인 중 그 다음해 정량 평가를 하여 매출액, 고용창출, 수출 등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후속지원을 해주는 후속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후속지원 사업은 사업 초기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방안이다. 임현욱(2018)이 설명한 창업보육센터의 성장단계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따르면 창업기는 신기술의 아이디어 단계로 초기자금이 많이 요구되는 단계이므로 정부지원 사업 중 R&D,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정책자금, 시설공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성장기에는 시장진입단계로 마케팅을 위한 판로·마케팅사업, 해외진출 사업화 정부사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19]. 그러므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신사업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생명주기에 맞게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one-stop 시스템구축이다. 현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이론 교육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행정실 및 체험 점포들이 각각의 장소에 존재하여 창업의 대표성을 띠는 랜드마크(5)의 역할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

5) landmark 또는 경계표(境界標), 마루지는 원래 탐험가나 여

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최소 한 개의 체험 점포를 교육장, 행정실과 함께 한 건물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 창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인력 확대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6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대부분 1명의 전담 인력이 모든 행정, 교육, 멘토링 및 각종 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빠른 행정 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담 인력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발전 방안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Development plan for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NO	Development Plan
1	Focus on industries with new business ideas, selecting students for training
2	Curriculum to lear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ntrepreneurship necessary for practical business start-up
3	Enhanced Mentoring Program
4	Introduction of follow-up support program
5	Set up one-stop system for New Business Academy

5. 결론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융합의 시대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창업자를 양성하고 양질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 프로그램 중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융합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프로그램의 경우 전국 중 수도권이 서울 및

경기지역과,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의 6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지역적 한계성을 가진다. 또한 체험 점포의 경우 예비창업자들이 소비자 반응이나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특급상권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지역에 입점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포함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창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3). *Survey Report of Small Businesses in Korea*. Daejeon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2] Start-up. (May 30, 2018).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Korean Dictionary*.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 [3] J. R. Yoon & H. C. Kim. (2009).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Performance - Differentiation Strategy -. *Productivity Review*, 23(4), 401-427.
<https://doi.org/10.15843/kpapr.23.4.200912.401>
- [4] J. A. Timmons & S. Spinelli.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Vol. 4). Burr Ridge, IL: Irwin.
- [5] R. Ronstadt. (1987).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4), 37-54.
<https://doi.org/10.1177/104225878701100403>
- [6] K. H. Vesper. (1990). *New venture strategies*, NJ: Prentice-Hall.
- [7] M. J. Dollinger. (2008).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Marsh Publications.
- [8] J. A. Schumpeter. (1961).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s: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Harvard University Press.
- [9] I. O. Jeon. (2012). Established business start-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103-114.
- [10] D. R. DeTienne & G. N. Chandler. (2004).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its role in the entrepreneurial classroom: A pedagogical approach and empirical test.

행자 등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뜻이 더 넓어져 건물이나 타워, 문화재, 상징물, 조형물 등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랜드마크라고 칭한다.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3(3), 242-257.

<https://doi.org/10.5465/amle.2004.14242103>

- [11] B. M. Seol & H. S. Hong. (2013). A study on the business opportunity source and searc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
- [12] H. Zhao, S. E. Seibert & G. E. Hills. (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
<https://doi.org/10.1037/0021-9010.90.6.1265>
- [13] H. S. Kim. (2015). A Study on the Convergenc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5), 79-88.*
<https://doi.org/10.14400/jdc.2015.13.5.79>
- [14] N. F. Krueger Jr & D. V. Brazeal.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https://doi.org/10.1177/104225879401800307>
- [15] M. J. Lee & H. S. Yang. (2015). Study on Influence of Market Merchant College Education in Convergence Era to Educ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209-218.*
<https://doi.org/10.14400/jdc.2015.13.10.209>
- [16] O. S. Yug & T. M. Lyu. (2004).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Scheme of th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8, 347-367.*
- [17] H. B. Yang. (2017). *Status of the start-up policy and efficiency plan*, Sejong :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18] I. C. Yoon. (2017). Effect on startup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265-273.*
<https://doi.org/10.15207/JKCS.2017.8.6.265>
- [19] H. W. Yim. (2018). A Study on the Causes and Consulting Methods to Reduce the Differentiation of Incubator Cent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313-320.*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1.313>

이 시 우(Lee, Siwoo)

[정회원]



- 2018년 11월 ~ 현재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컨설팅학과
- 관심분야 : 창업, 컨설팅, 경영컨설팅, 창업컨설팅, 창업정책
- E-Mail : clsfaei@naver.com

이 현 수(Lee, Hyun Soo)

[정회원]



- 2011년 9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부교수
- 2010년 8월 : Texas A&M University (공학박사)
- 2002년 2월 : POSTECH (공학석사)
- 관심분야 : 비선형최적화, 지능형 가상시스템설계, SCM
- E-Mail : hsl@kumoh.ac.kr